[UCI]I804:24011-200000237578

2009년 2월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배구경기에서 심판판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free's decision in the volleyball game on the athlete's performance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최 희 광

배구경기에서 심판판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지 도 교 수 송 채 훈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 0 0 8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최 희 광

최희광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안 용 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동 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송 채 호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3
C. 연구의 가설 3
D. 연구의 제한점 4

Ⅱ. 이론적 배경 5

A. 배구의 역사 5
B. 배구 경기 9
C. 심판 13
D. 경기력 17
E. 선행 연구 20

Ⅲ. 연구 방법 22

A. 연구 대상 22
B. 연구 기간 및 절차 23
C. 연구 도구 24
D. 자료 처리 26

Ⅳ. 연구결과 27

A.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차이 27
B.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36

Ⅴ. 논 의 39

A. 개인적 특성에 다른 심판판정 인식 차이 39
B.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41

Ⅵ. 결론 및 제언 44

A. 결론 44
B. 제언 46

참고문헌 47

설문지 50

표 목 차

<표 1> 운동수행의 결정요인 17
<표 2> 스포츠 경기수행의 성취 요인..... 18
<표 3> 경기력 향상에 관련된 요인들 19
<표 4>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22
<표 5> 연구 절차 23
<표 6> 설문지의 주요 구성 내용 25
<표 7> 소속한 지역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28
<표 8> 선수 경력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30
<표 9> 대회 참가 빈도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32
<표 10> 포지션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33
<표 11> 입상 실적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34
<표 12> 팀 내 역할도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35
<표 13> 심판 판정 인식 요인이 경기력간의 상관관계 37
<표 14> 심판 판정 인식 요인과 경기운영에 미치는 영향 38
<표 15> 심판 판정 인식 요인과 경기운영에 미치는 영향 38

ABSTRACT

The effect of refree's decision in the volleyball game on the athlete's performance

Hee Kwang Choi
Advisor : Prof. chae hun Song Ph 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referee's decision on performances of volleyball players. With a population consisting of volleyball players in seventeen middle schools of the five areas, who are registered in the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as of 2008, self-administrated method was used for sampling and thus the data of a total of 200 students were actually used for and analysis. For data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one way ANOVA, Tukey HSD,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The One Way ANOVA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referee's decision by area, number of volleyball games, and player's career indicated that the fairness, consistency, and reliability have had a strong inference on performances of volleyball players. Second, the effect of the referee's decision by position indicated that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have had a weak inference on performances of volleyball players.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airness, quickness, consistency,

reliability, and games management have had a similar inference on the effect of the referee's decision on performances of volleyball players. As, the game management by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have had a similar influence on the all factor. However, the game influence of referees didn't indicate a visible change on the all factor.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모든 운동경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요소를 절대로 빼 놓을 수가 없다. 팀 간, 또는 개인 간의 승패나 기록을 위한 경쟁은 참가 당사자들에게 도전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이고, 관람자들에게 흥미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김영학, 신승호, 1999). 하지만 스포츠의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한 경기장 폭력, 심판 판정시비 등의 스포츠맨십의 결여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박찬희, 1991). 이는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의식이 승리주의가 지나친 승부욕에 치우쳐 그로 인한 규칙의 일탈 및 우회하는 일탈적인 기술지도가 일반화되어 지고 있고(이병호, 1984), 약물복용 및 폭력행사, 고의적 규칙위반 및 속임수 행위, 심판과 선수간의 판정시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스포츠 현장에서 깊은 불신이나 긴장을 조장시키는(최선길, 1995)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자가 아무리 훌륭한 정신으로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관중이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교양이나 품위 있는 관람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이 풍부한 경험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권위 있는 게임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경기의 불상사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민웅기, 1984). 이러한 문제는 심판과 선수간의 판정시비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으며, 심판의 고의적인 편파판정이나 금전 매수문제 등은 기사화 되어 물의를 빚기도 한다(정말순, 2000).

경기진행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심판에게 판정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판정은 우수선수의 후광효과(Halo effect), 엄격성과 관대함 평정형식, 평점점수의 중앙 집중 경향(Central tendency), 일관성 등이 판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경기를 막론하고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Lunz, Wright, & Linacre, 1990).

최근 프로배구 경기에서는 경기 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거나 비디오 판독 등을 도입하여 공정한 심판판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

히 심판판정에 관한 논란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Linacer(2002)는 스포츠 현장에서 심판의 오류를 제거하는 판정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심판은 긴장해서 플레이어를 주시해야 하며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플레이의 판단은 시계나 어떤 측정기로써 판정을 계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관에 의하여 판단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책임 하에서 내려야 한다(박상록, 1996). 심판의 미숙한 경기진행, 오심 및 불공정한 판정은 선수와 팬들의 불만과 실망을 초래하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켜 스포츠 발전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심판은 경기 중에 일어나게 되는 반칙행위에 있어 모든 경기에 관계된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정을 정확하게 내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선수, 지도자, 관중들로부터 신뢰받는 심판원이 되기 위해서는 심판기술에 대한 연구와 심산의 조화를 위한 수련을 수시로 해야 하며, 강한 정의감, 주의력과 집중력, 강인한 체력은 물론 규칙 수정에 대한 빠른 수용 및 적용 등이 필요하다(김종철, 1995). 또한, 심판의 정확한 심판판정은 곧 선수들의 기술과 경기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말순(2000)은 심판의 심판판정이 경기 결과나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선수가 70.3%를 차지해 아직까지 배구 경기를 함에 있어 선수들의 기량뿐 아니라 심판들의 판정 하나 하나에 승패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심판원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 연구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제 심판 판정에 따른 선수들의 심리 상태 변화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정청희, 홍길동,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배구 경기에서 심판판정이 경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여 불공정한 판정을 줄이고 선수의 심판의 판정인식을 파악하여, 배구 경기에 여러 가지 방식과 규칙을 적용하여 보다 나은 경기력 향상을 도모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B.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배구 경기에서 심판 판정이 공정한지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과 함께 더불어 경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공정한 심판판정과 더불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C. 연구의 가설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심판 판정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배구 선수들의 소속 지역 따라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배구 선수들의 선수 경력에 따라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배구 선수들의 대회 참가 빈도에 따라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배구 선수들의 포지션에 따라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배구 선수들의 입상 실적에 따라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배구 선수들의 팀 내 역할도에 따라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이 선수들의 경기력(경기운영, 경기 영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구대상, 조사도구, 관계모형 설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표집 대상의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제한적 이해와 해석이 요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남자 중학교 배구 선수들로 한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요인인 심판자질의 하위요인은 심판에 대한 심판판정 및 자질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을 대표할 수 없다.

Ⅱ. 이론적 배경

A. 배구의 역사

1. 배구의 기원

배구는 1895년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홀리욕시에 있는 YMCA의 체육부장 Williams G. Morgan에 의해 고안되었다. 그는 과격한 농구보다 좀 유연한 Ball Game의 필요성을 느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기에 적당하며 흥미 있고 대중적인 스포츠를 만들고자 하여 배구를 창안하였다. 현재 배구는 엘리트 체육 및 동호회로 활성화 되어 세계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이 경기를 미노네트(Minonette)라고 불려 왔으며, 그 후 Luthur H.Gulik 박사가 다른 이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고, Alfred T. Halstead 박사가 'Volley ball' 이라 개명하여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대한배구협회).

'Volley ball' 이란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총포가 쉴 사이 없이 발사되는 것을 연상하여, 네트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경기자가 날아오는 공을 지면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네트를 넘겨 상대방에게 쳐 보낸다는 점에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배구의 인원수나 규칙은 1897년 Dr. T. Fisher씨에 의하여 정해졌으며 1900년 캐나다가 스포츠로써 도입하고, 1905년에는 쿠바가, 1910년에는 필리핀, 우루과이, 일본과 중국 등이 도입하게 되었다(김교준, 1994).

최초 경기로서의 배구는 세계 각 지역마다 조금씩 경기방법과 규칙이 달랐는데, 아시아에서는 1910년 국제 YMVA 간사인 엘 우드 S. 브라운(Elwood S. Brown)이 필리핀에 처음 소개하였고(최희남, 1987),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시아인에 적합하도록 인원과 규칙이 발전하였으며(이긍세, 1987), 1913년 마닐라에서 제1회 극동 아시아 선수권대회가 개최 되었을 때 인원수는 한 팀에 15명이었으나 그 후 12명으로 되었다가 1972년 제8회 극동 아시아대회 때부터 9인제로 개정되어 소위 극동식 배구로 정착 되었으며, 1985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대회 때부터 6인제 배구가 채택되었다.

또한, 다른 형태의 배구 경기는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와 남부 캘리포니아 해변, 프랑스 일부 해변 가에서 2인제 배구가 레크리에이션과 높은 경쟁의 스포츠로서 실외에서 인기 높게 행해지게 되었다(이긍세, 1987).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1차 대전 때부터 미국 병사에 의하여 소개된 배구가 프랑스, 체코, 헝가리, 소련 등으로 발전되어 갔으며(김교준, 1994), 높은 체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스포츠로서 발전되어 공식 경기 때에는 야외 경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세계적인 배구로서 발전은 프랑스를 주축으로 소련, 폴란드, 유고, 체코 등으로 14개국이 중심이 되어(이긍세, 1987) 1848년에 국제 배구 연맹(FIVB)이 탄생되었고, 194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제1회 세계배구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1952년 제2회 대회부터는 여자도 포함하게 되어 많은 국가들이 이 6인제 배구에 참가함으로써 동서 배구는 범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다(김교준, 1994).

배구가 올림픽 종목으로서 채택된 것은 1961년 남자 배구는 아테네에서 열린 I.O.C. 총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 되었고, 여자 배구는 그 다음해인 196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채택,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인정되었다(대한배구협회).

배구 경기를 보다 흥미롭고 박진감 있게 하려는 FIVB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의해 1996년 아틀란타 FIVB총회(7월14-16일)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FIVB World League Council 회의(10월8일-11일)에서 새로운 경기규칙으로 전문 수비선수제도(Libero defensive player), 수비범위 확대, 배구공의 압력감소 등이 중요한 안건으로 통과 되었다.

2. 한국의 배구 역사

한국에 배구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15년 성서공회에 근무하고 있던 베이커 씨가 규칙서를 번역하여, 당시 YMCA 영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코트를 만들어 배구를 하도록 한 것이 한국에 최초로 소개 되었다(이긍세, 1987).

1916년 YMCA에 운동부와 유년부의 고문으로 내한 하였던 반하아트(Bahnhart)가 청년 회원들에게 배구 지도를 하였는데 이때의 배구는 12인제였고(대한배구협회), YMCA 팀과 세브란스 병원 직원 팀과의 경기가 최초의 공식 시합이었다(이긍세, 1987). 이때 반하아트가 가끔 배구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함으로써 배구는 점차적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1917년 YMCA 체육관에서 재경 서양인 팀과 YMCA 청년회원 팀과의 대항경기를 거행하여 일반인들에게 배구의 보급 발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김교준, 1994). 그 후 1925년 조선신문사 주최 제1회 전조선 배구대회가 제일여고 교정에서 공인 경기로서 처음 행하여졌고, 1927년에는 한국 배구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일본 중앙 YMCA 체육부 간사인 브라운씨를 초청하여 강습회를 개최한 후부터 배구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대한배구협회).

1927년 제3회 조선 신궁 경기대회 때부터 배구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참가하였고, 1928년에는 YMCA 주최의 제1회 전조선 배구 선수권대회가 열려 자체적인 발전을 꾀하였으나, 1942년 전문대학의 구기 폐지와 중학교 구기 운동 제한으로 학교 배구가 침체 하게 되었다.

8.15 해방 후 1946년 3월 보성전문학교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동호인들로 대한배구협회가 창립되었고(김교준, 1994), 동년 5월부터 시작된 전국 종별배구 선수권대회는 현재까지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1945년에는 홍콩 배구협회의 초청으로 한국 배구 경기 사상 최초로 해외원정을 하게 되었으며, 다음해인 1955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 배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준우승을 하였다(김교준,1994).

1956년 대한배구협회는 전국 남녀종합 배구 선수권대회를 창설하여 남녀 팀의 경기력 향상을 꾀하였으며, 당시 대부분 9인 제를 실시되었던 배구경기는 1958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6,9인 제를 함께 실시하게

되었다(임형심, 1995).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도 6인 배구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9인제와 6인 제를 병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김교준, 1994). 또한, 1959년 10월에는 국제 배구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며 1960년 제5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남녀 모두 6인제 배구에서 준우승을 하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6인제 배구의 채택이 늦어진 한국은 자체 기술 개발 및 외국 기술의 도입으로 1968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에서는 여자 팀이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여자 주니어 팀은 1977년 세계 주니어 배구 선수권대회, 1981년 제2회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였으나(김교준, 1994), 세계 각국의 배구가 해를 거듭하면서 크게 향상되고 있어 세계 속의 한국 배구를 살리려면 체력 및 체격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많은 노력과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이종희, 1989).

B. 배구 경기

1. 경기의 특징

배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기로 상대코트에 볼을 떨어뜨리기 위해 네트 너머로 볼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볼은 서비스, 스파이크, 블로킹, 리시브 등의 형태로 보내지며 아웃이 선언되거나 범실이 일어날 때까지 진행되는데 이러한 볼은 대부분이 네트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며(FIVB, 2007),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배구심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현대 배구의 흐름은 빠른 경기진행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 적용(FIVB, 2007)되어 심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배구 경기의 시작은 서비스로 시작되며,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을 했을 때 랠리의 종료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서브 팀의 경우는 1점을 획득하고 서비스를 계속한다(rally-point system). 세트(최종 5세트는 제외)의 승자는 최소한 2점을 먼저 얻는 팀이 되며, 24 : 24의 동점인 경우 2점차가 날 때까지 계속하게 된다. 경기의 승자는 3세트를 선취한 팀이 도며, 세트 스코어 2 : 2가 되어 최종세트 5세트는 최소한 2점을 리드한 15점까지 경기를 계속 하게 된다.

서비스는 서비스 존에 위치하고 있는 우측 후위경기자가 볼을 인플레이(in play)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며, 제1세트와 제5세트의 첫 번째 서비스는 토스결과 서비스 권을 선택한 팀이 먼저 넣고 그 이외의 세트는 이전의 세트에서 먼저 서비스하지 않은 팀의 서비스로 시작된다. 경기자들은 라인업 용지에 기록되어 있는 서비스 순서를 따라야 하고, 공격은 서비스와 블로킹을 제외하고 상대편 코트로 볼을 보내는 모든 동작을 공격이라고 하며, 이런 공격을 할 때 티핑(tipping)은 허용되지만 잡거나 던져서는 안 된다. 공격은 볼이 네트의 수직면을 완전히 통과한 순간 또는 상대편에 의해 볼이 접촉되는 순간에 완료된다. 배구 경기에 있어서 블로킹(blocking)은 경기자가 네트에 접근하여 상대편으로부터 오는 볼을 막기 위해 네트 상단 위에서 저지하려는 행위이며, 전위 경기자만이

블로킹에 참가할 수 있다. 블로킹의 시도는 경기자가 볼에 접촉 없이 블로킹하려는 동작을 말하며, 그것의 완료는 볼이 블로커에 접촉되었을 때 완료된다.

경기의 중단 형태에는 타임아웃(time-out)과 경기자 교대(substitution)이며, 각 팀은 세트마다 2회의 타임아웃과 6회의 경기자 교대를 할 수 있다. 세트 간 휴식은 3분간이며, FIVB 세계대회와 공식경기에서는 2세트와 3세트 사이에 의무적으로 10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코트의 교대는 최종세트가 아니면 양 팀은 각 세트가 끝날 때마다 코트를 교대한다. 최종세트에서 한 팀이 8점에 도달하면 현재와 같은 경기자 위치 그대로 코트를 교대한다. 코트의 교대가 리드하는 팀이 8점에 도달하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깨닫는 즉시 시행해야 하며, 스코어는 교대 시 점수를 유지하게 된다(배구경기규칙서, 2007).

2. 배구심판

배구 심판은 FIVB(Federation of International Volleyball)에서 권장하는 심판의 자세 및 역할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심판지침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VB에서 권장하는 이 지침은 각종 국제대회를 위해 유용하며 이러한 대회의 심판활동을 위해 모든 배구심판들은 최적의 신체적 · 심리적 조건하에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심판들은 현대 배구에 관해 심판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 배구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의 판단으로 게임의 규칙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 이유는 심판은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인 규칙의 적용만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심판이 엄청난 능력이 요구 되고 이 같은 능력은 개인적인 노력과 배구에 관한 지식이 누구보다 높아야 하며, 해마다 배구경기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정말순, 2000).

그러므로 배구 심판은 단지 팀 구성원, 팀, 선수의 기술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결점을 감시하고 제재를 규칙에 맞추어 적용하는 등의 단순한 경찰관이 하는 일과 같은 식으로 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심판을 보는데 있어 아

주 부정확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심판은 경기를 위해 일하고 그리고 선수와 함께 하는 전문가 혹은 친구로 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치중하게 된다면 아마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배구심판은 결코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켜서는 안 되며 경기 뒤에서 반드시 필요할 때 관여할 뿐이다. 그러한 행동은 현대 배구에서 필수적이다. 현대 배구와 FIVB의 목적은 보여주기 위한 배구를 요구하며, 최고를 낳는 것은 관중들과 수백만의 팬들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 진다. 오늘날의 고도 수준의 배구는 작은 경기장에서, 관중 없이 단지 선수들의 만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관중들은 심판의 휘슬소리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개인의 기량 혹은 팀의 기량과 함께 경기의 멋진 플레이를 보려는 것이다(정말순, 2000).

훌륭한 심판은 경기의 뒤에서 이러한 기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반면에 그릇된 심판은 경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키려 함으로써 그런 멋진 플레이들을 항해하게 되고 이는 FIVB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맞지 않는 것이다. 심판은 룰의 정신에 아주 장관인 동작과 흥미진진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와 팀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게다가 그것은 심판이 선수들, 감독, 코치, 그 외 임원 앞에서 훌륭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심판으로서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경기 중 심판은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 하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 표출과 의식적으로 비 스포츠맨적인 행동을 하는 것 사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심판은 전자의 경우와 같은 감정의 표출은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경기가 좋은 환경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멋진 플레이 동작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일어서는 것과 같은 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감정의 표출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식하고 있는 부정적인 표현이나 상대 혹은 심판판정에 항의하는 옳지 못한 동작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지고 제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Refereeing Guidelines, 1999).

3. 심판 자격

6인제 배구경기 심판원 등급은 대한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강습회를 수료함으로써 공인된다. 그 유형은 FIVB 국제심판, 국제심판, 국제심판후보, 국내심판 A, B, C급으로 나뉜다.

공인 심판자격 취득은 필기와 배구실기 및 심판실기, 기록으로 이루어지며, 주니어(Junior) 출신 및 실업팀 출신은 B급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시니어(Senior) 출신 및 대표선수 출신은 국내 A급으로 바로 응시가 가능하다. 국제 심판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A급 취득 후 3년 후에 배구협회의 인원추천을 받아 자격이 주어지며, 국제심판은 국제심판후보로 활동한 후 국제 배구연맹의 추천으로 국제심판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대한배구협회, 2007).

C. 심 판

1. 심판의 기능

심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도착순위의 판정, 던지기 경기에서 유효와 무효의 선언, 경기상의 행위에 관한 규칙위반과 판정과 벌칙적용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기임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수한 심판은 공정한 경기판정과 원활한 경기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정말순, 2000).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인적요인에는 선수, 지도자, 심판, 관중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심판은 참가자에게 심리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심판은 경기자를 위해서 존재하며, 경기자가 없으면 심판은 있을 수 없다. 경기자의 목표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기 시에 그들의 힘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심판에 임하는 자에게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넓은 시야에서의 바른 인식과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발생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단계에서의 규칙, 경기관의 변천, 경기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이해 등 풍부한 인간성을 기반으로 하여 바르게 생각해 주는 심판이 되어야 한다.

높은 스포츠 정신과 함께 경기자의 심정을 이해하며, 책임을 자각하여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어떠한 심리적 압박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을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경기자나 관중으로부터 항상 종경을 받고 신뢰받는 품위와 인격을 가진 사회인이어야 한다는데 유의하여 노력해야 한다.

훌륭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심판으로서의 경험과 경기종목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하고,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위해서는 횟수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

경기기술과 관련된 연구와 함께 경기규칙과 그 정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기규칙이 가진 그 정신을 살려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규칙상의 문자만을 해석하는 심판에게서는 좋은

경기의 진행이 될 수 없다. 경기자와 관중과의 컨디션, 경기장의 조건 등에도 충분히 배려를 하여 넓은 범위에서 문제를 다루고 경기자나 관중에게 만족될 수 있는 경기의 진행을 맡아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김동규 1983).

스포츠에 있어서 많은 판정이 경기의 스피드 화에 따라 점점 곤란해져 가고 있으며, 타이밍을 맞추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심판의 열의, 경기자의 태도, 경기장의 전반적 통제 및 조절, 심판기능의 그 무엇인가가 관객의 가슴을 울리고 경기를 고조시켜 그 결과가 경기자가 힘을 내서 충분한 전개 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심판의 기능이라 하겠다(박상록, 1996).

2. 심판의 자질

심판은 경기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경기자가 없는 심판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은 경기자를 위하여 각자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심판에 임해야 한다. 경기자가 방심하지 않고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기진행 중 항상 공평무사의 원칙이 지켜지고 명랑한 분위기에서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의 공명정대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심판이 자기의 존재 의의를 알게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경기에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판정이 이루어지거나 경기 그 자체를 의미 없는 본능적이 경쟁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수가 있다(박찬희, 1991).

3. 심판의 책임

IOC와 UNESCO의 협력 하에 ICSSPE(국제체육 · 스포츠 평의회)에 의해 내려진 페어플레이에 관한 선언에 나타난 심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심판은 스포츠 경쟁의 본성이 어떠하든, 그리고 경기장에 꽉 찬 관중들이거나, 소수의 관중 앞이라도, 심판은 규칙에 맞추고 이루어 나가야 할 역할을 지니고 있다. 페어플레이의 향상을 위해 심판이 기여하는 범위는 특별하고 필수적이다.

심판은 재치와 판단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다. 심지어 판단이 틀렸더라도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심판의 특별한 권리에는 책임감이 뒤따른다. 심판은 모든 규칙과 규정 그리고 최신의 것에 관한 전번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스포츠나 경기의 움직임을 함께 가까이에서 해야 하는 스포츠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심판의 개성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만큼 작용한다. 자기 통제력, 자신감, 사교성, 고집 모두는 심판의 효율성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이다. 심판은 때때로 운동선수나 심지어 관중들에게 사용하는 언어나 동작이 만족감과 유쾌한 경기를 위해 재정비 조건에 충분한지 깨달아야 한다.

심판은 그와 관련된 행동을 경기 현장에서만 국한 시켜서는 안 되고, 특히 수준 낮은 시합에서 경기가 벌어질 때를 전 · 후로 선수들과 접촉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심판의 신용과 직결될 것이다. 주심은 이와 같은 필요 없는 접촉을 피해야만 심판은 권위를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어플레이에도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정말순, 2000).

4. 심판의 자세

Willi R. Smith(1999)는 심판이 지녀야할 자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 하였다.

·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Keep Moving)
· 프로처럼 보여야 한다.(Look Professional)
· 일찍 도착해야 한다.(Arrive Early)
· 팀을 만나도록 한다.(Meet the Team)
· 웃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다.(Show & Smile)
· 효과적인 시그널을 사용해야 한다.(Signal Effectively)
· 말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Don't Be Afraid to Talk)
· 존경을 표하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Respectful Address)
· 시선을 마주쳐야 한다.(Eye Contact)
· 감독관, 경기임원 등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Keep in Touch)

D. 경기력

경기력(performance)이란 경기장에서 선수 개인이나 팀이 발휘하는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유전적인 요인은 물론이고 체격이나 체력, 훈련량, 훈련기간 및 경기 당시의 심리적인 상태, 경험유무, 경기장의 조건 등 내적 외적인 요인이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형태학적, 생리적, 사회학적, 물리적, 심리적인 요인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각종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경기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종목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그 요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경기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훈련과 훈련의 극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과학적인 훈련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정국현, 2003). 신동성(1997)은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내적 요인 즉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요인과 외적 요인 즉 물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그것을 세분화 하여 <표-1>와 같이 나타냈다.

< 표 - 1 > 운동수행의 결정요인

운동수행 요인	개인내적 요인	신체적 요인 : 신장, 체중 등 생리적 요인 : 체력 심리적 요인 : 성격, 동기, 정신력 등
	개인외적 요인	물리적 요인 : 기후, 시설 및 기자재, 기타 사회적 요인 : 광중, 코치, 팀 구성원

또한, 신동성(1997)은 스포츠 경기수행의 성취요인을 다음의 <표-2>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기 수행 성취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 2 > 스포츠 경기수행의 성취요인

형태 구성적 요인(constitutional factors) - 체표면적 측정 - 제지방(LBM) - 체격의 형태	운동적 요인(motorial factors) - 신체적 능력 - 운동 능력 - 전략, 경기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s) - 인성, 심리 · 생리 - 심리 · 운동현상 - 사회 심리학적 현상	생리적 요인(physiological factors) - 심폐기능 - 근 구조 - 운동기구

- 운동적 요인(motorial factors)

· 신체적 능력 : 스포츠 분야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능력 즉 순발력, 지구력, 스피드, 유연성 조정능력, 운동감각, 율동 등

· 운동 능력 : 특정한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능력, 스포츠 분야의 기술, 운동의 콤비네이션 등.

· 전략 : 특정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술

· 경기수행 : 경기 상황에서의 운동요인들의 분석

- 생리적 요인(physiological factors)

· 심장의 기능 : 유산소, 무 산소 젖산과 무 산소, 비 젖산의 특징을 지닌 과정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별한 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 근 구조 : 부하에 대한 반응, 일반적 또는 특수한 감각, 섬유구조와 운동, 수행, 근력의 상호작용 지구력과 스피드, 특수적응, 근 비대에 관한 사항.

· 운동기관 : 일반적으로 특정한 의미에서 부하에의 반응, 관절과 인대의 부하 민감성, 유연성의 발달 등에 관한 요소

-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s)

· 인성 : 스포츠분야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정한 인성적 특성 그들의 상호작용

- 동기, 불안, 공격성.

· 심리, 생리적이거나 심리, 운동적인 현상 : 일반적이고 특정한 의미에서 코치에의 반응 - 시야의 질 중추와 말초의 민첩성 운동감각, 균형 운동정확성 반응시간

· 사회 심리학적인 현상 : 집단구조와 인성뿐만 아니라 집단구조와 운동 수행사이의 관계 - 사회학적인 요인들과 수행사이의 상호작용

- 형태 구성적 요인(constitutional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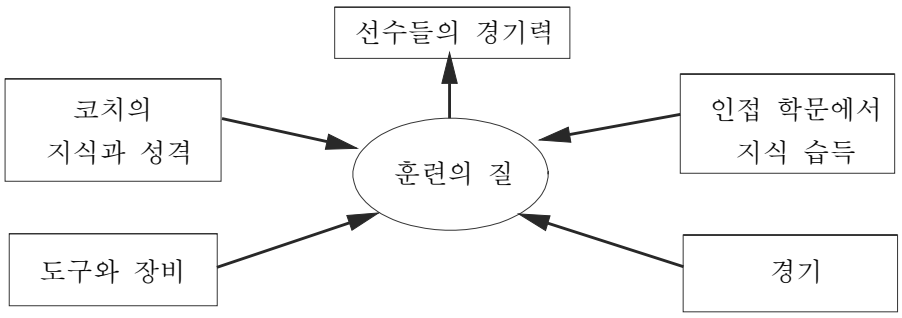
· 신장과 넓이의 측정 허리둘레의 측정

· 제지방(LBM) : 지방조직의 특정한 적응

· 체격의 형태 : 스포츠분야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정한 특징의 체형

이상적인 훈련 체계와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결과는 수준 높은 경기력을 발휘하게 한다. 즉 훈련의 질은 코치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3>처럼 코치와 무관한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표 - 3 > 경기력 향상에 관련된 요인들



C. 선행 연구

최근 단체 경기에서 심판 문제가 대두되면서 심판원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한 심판 판정은 곧 선수들의 기술향상 및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판 및 심판판정을 주요 연구변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영학(1992)은 '검도 심판 판정에 따른 선수들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검도 선수들은 심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형윤과 조영권(1993)은 '심판들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레슬링 심판들의 경우 경기 운영진은 일반적으로 공정하지만 결정적인 판정 시에는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심판원과 심판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며 심판 스스로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인 김종철(1996)의 '운동 경기 심판들의 의식 조사'에서 심판들은 집단 종목의 경우 선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60.47%를 차지하고 있었고 경기 중 오심의 경험 유무에 "있다." 라는 응답이 무려 91.86%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집단 종목에서 심판의 신뢰도는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신뢰받는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심판에 대한 판정 교육 및 차후 개선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상록(1996)은 다양한 스포츠 구기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자는 보통(28.49%), 불공정하다(13.28%) 등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보통(15.49%), 불공정하다(10.56%)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이 심판 판정 결과에 따라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유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윤동식(1998)의 연구에서, 심판이 판정할 때 코치와 감독의 친분 관계 때 유리한 판정 유 · 무는 '그렇다'가 51.85%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주관성이 없는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47.22%,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가 53.70%, 연고지에 대한 차별 판정 유 · 무는 약간 있다가 54.63%로 부정적인 심판판정에 대해 높은 비율로 나타냈으며 그리고 경기 상황에서 전통 있는 학교를 도와준다는 유 · 무는 약간 있다가 50.93%, 협회 임원들의 영향력 유 · 무는 약간 있다가 50%로 나타나 모두 시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선수들은 심판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판정이 애매할 경우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순(1999)의 배구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37.9%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53.1%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심판의 판정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판의 판정이 경기 결과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선수들은 무려 70.3%를 차지해 아직까지 배구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심판들의 판정 하나 하나에 승패가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운동경력이 오래된 선수일수록 심판의 판정에 대한 인지도나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스포츠 종목에서의 심판원과 심판 판정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심판원과 심판 판정에 대해 비교적 낮은 신뢰를 갖고 있으며 심판의 자질 및 능력과 심판 태도에 따라 경기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많은 심판원들은 심판 판정에 있어서 공정성 및 정확성이나 경기 운영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대한배구협회에 등록된 선수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내용 일부가 누락된 34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0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서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 4>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내용	인원	백분율(%)
성별	남자	200	100
소속 지역	수도권	30	15
	충청권	28	14
	전라권	60	30
	강원권	26	13
	영남권	56	28
선수경력	1-2년 미만	12	6
	2-3년 미만	30	15
	3-4년 미만	76	38
	4-5년 미만	20	10
	5년 이상	62	31
대회 참가 빈도	년 1회	16	8
	년 2회 ~ 3회	56	28
	년 4회 ~ 5회	78	39
	년 5회 이상	50	25
포지션	Left	68	34
	Right	54	27
	Center	50	25
	Setter	28	14
입상 실적	우승	22	11
	준우승	58	29
	4강	56	28
	예선탈락	62	32
팀 내 역할도	주전	138	69
	교체	46	23
	비 주전	16	8

B. 연구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로 연구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설계, 전문가 상담 및 예비 설문 문항 작성, 연구 대상 선정, 설문 조사, 자료 분석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5> 연구 절차

연구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설계
▼
전문가 상담 및 예비 설문 문항 작성
▼
연구 대상 선정
▼
설문 조사
▼
자료 분석
▼
논문 작성 및 제출

C.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 측정을 위해 기술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설문지를 통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이진성(2005), 박대성(2007)이 사용한 “심판 판정 인식”에 관한 설문지를, 정민규(2004)가 사용한 “경기력”에 관한 설문지 사용하였다.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사용했던 도구로 본 연구 문제를 해결 하는데 적합한 설문 문항을 전문가 검토(전공 교수 3인)를 통해 타당도 검토를 의뢰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선별된 설문지는 예비 검사를 통해 설문 내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수정 · 보완하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1.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개인적 특성 7문항, 심판판정의 인식요인은 하위 4개 요인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심판판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운영에 관한 항목 8문항, 경기영향력에 관한 항목 5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만족도 응답은 리커드식 오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로 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정형의 문장은 역산하여 통계처리 하도록 하였다.

2. 설문지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α 계수를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인식 요인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얻기 위해 Cronbach'α로 검증된 내적 일관성은 독립변인은 .907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도구임을 확인하였으며, 종속변인은 .794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양호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구성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 6> 설문지의 주요 구성 내용

변인	구성요인		구성내용	문항수	신뢰도
배경 변인	개인적 특성		성별, 소속 지역, 경력, 참가 빈도 포지션, 입상 실적, 역할도	7	.
독립 변인	심판 판정		공정성	5	.689
			신속성	4	.714
			일관성	3	.655
			신뢰성	4	.814
	합 계			16	.907
종속 변인	경기력	경기 운영	경험, 열정, 설득력, 공정성, 상황 판정, 판정 후 조치, 보상판정, 이상적 판정	8	.855
		경기 영향력	경기 승패, 상황적 불이익, 경기력 발휘, 심리적 위축	5	.708
	합 계			13	.794

D.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 중에서 부정확한 자료나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SPSS 12.0 for window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 Cronbach's α 값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인 배구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 관련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구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판 판정의 하위요인(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Tukey HSD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심판 판정의 하위요인(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과 경기력의 하위요인(경기 운영,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방법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 .05로 설정 하였다.

Ⅳ. 연 구 결 과

A.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차이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중학교 배구 선수들의 심판 판정에 따른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분석 하는 것이다.

1. 소속 지역에 따른 심판유형별 심판판정 인식 차이

소속 지역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소속 지역에 따른 공정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5.516, 유의확률이 .000 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지역에 따른 신속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3.963, 유의확률이 .005 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지역에 따른 일관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4.143, 유의확률이 .004 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지역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4.004, 유의확률이 .005 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7>에서 보면 Tukey HSD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공정성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수도권과 강원권, 전라권과 강원권이 차이가 나타났다. 신속성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수도권과 강원권이 차이가 존재한다. 일관성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과 충청권, 영남권과 충청권이 차이가 나타났다. 신뢰성의 경우 수도권과 강원권, 영남권과 강원권이 차이가 나타났다.

< 표 - 7 > 소속 지역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소속	M	SD	F	p	Post-hoc
공정성	수도권(1)	2.87	.54	5.516***	.000	1-3,5 2-3,5 2-4,5
	충청권(2)	3.60	.88			
	전라권(3)	3.11	.52			
	강원권(4)	3.80	.45			
	영남권(5)	3.42	.70			
	합계	3.32	.68			
신속성	수도권(1)	3.12	.65	3.963**	.005	1-3,5 2-3,4,5
	충청권(2)	3.88	.67			
	전라권(3)	3.38	.67			
	강원권(4)	4.00	.59			
	영남권(5)	3.46	.82			
	합계	3.51	.74			
일관성	수도권(1)	3.11	.67	4.143**	.004	1-3,4,5 2-4
	충청권(2)	4.00	.70			
	전라권(3)	3.31	.68			
	강원권(4)	3.77	.53			
	영남권(5)	3.32	.81			
	합계	3.44	.75			
신뢰성	수도권(1)	2.90	.67	4.004**	.005	1-2,3,5 2-3,4
	충청권(2)	3.55	.90			
	전라권(3)	3.33	.66			
	강원권(4)	4.02	.50			
	영남권(5)	3.28	.95			
	합계	3.37	.82			

2. 선수 경력에 따른 심판유형별 심판판정 인식 차이

선수 경력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8>과 같다. 선수 경력에 따른 공정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5.168, 유의확률이 .001 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신속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2.074, 유의확률이 .090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일관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3.347, 유의확률이 .013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3.703, 유의확률이 .008 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8>에서 보면 Tukey HSD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공정성의 경우 1-2년과 3-4년이 차이가 나타났다. 일관성의 경우 분산분석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뢰성의 경우 1-2년과 3-4년이 차이가 나타났다.

< 표 - 8 > 선수 경력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경력	M	SD	F	p	Post-hoc
공정성	1 - 2년미만(1)	2.80	.63	5.168**	.001	1-2,4,5 2-3,4,5
	2 - 3년미만(2)	3.04	.53			
	3 - 4년미만(3)	3.67	.65			
	4 - 5년미만(4)	3.22	.32			
	5년 이상(5)	3.16	.72			
	합계	3.32	.68			
신속성	1 - 2년미만	3.13	.03	2.074	.090	
	2 - 3년미만	3.18	.79			
	3 - 4년미만	3.73	.79			
	4 - 5년미만	3.43	.59			
	5년 이상	3.51	.58			
	합계	3.52	.74			
일관성	1 - 2년미만	3.00	.56	3.347*	.013	
	2 - 3년미만	3.13	.71			
	3 - 4년미만	3.75	.73			
	4 - 5년미만	3.27	.44			
	5년 이상미만	3.34	.80			
	합계	3.44	.75			
신뢰성	1 - 2년미만(1)	2.79	.83	3.703**	.008	1-2,4,5 2-3,4,5
	2 - 3년미만(2)	3.00	.87			
	3 - 4년미만(3)	3.70	.87			
	4 - 5년미만(4)	3.13	.56			
	5년 이상(5)	3.34	.65			
	합계	3.37	.82			

3. 대회 참가 빈도에 따른 심판유형별 심판판정 인식 차이

대회 참가 빈도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9>과 같다. 대회 참가 빈도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14.369, 유의확률이 .000 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빈도에 따라 신속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8.051, 유의확률이 .000 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빈도에 따라 일관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12.053, 유의확률이 .000 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빈도에 따라 신뢰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9.293, 유의확률이 .000 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9> Tukey HSD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공정성의 경우 2-3회, 4-5회, 5회 이상과 2-3회, 4-5회, 1회와 4-5회, 3-4회와 4-5회가 차이가 나타났다. 신속성의 경우 2-3회와 4-5회, 1회와 3-4회, 5회 이상과 4-5회가 차이가 나타났다. 일관성의 경우 2-3회와 4-5회, 1회, 5회 이상과 3-4회와 4-5회가 차이가 나타났다. 신뢰성의 경우 1회와 4-5회, 2-3회와 4-5회, 3-4회, 5회 이상이 차이가 나타났다.

< 표 - 9 > 대회 참가 빈도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대회참가	M	SD	F	p	Post-hoc
공정성	1회(1)	3.20	.37	14.369***	.000	1-2,4 3
	2 - 3회(2)	3.17	.52			
	4 - 5회(3)	3.76	.60			
	5회 이상(4)	2.83	.65			
	합계	3.32	.68			
신속성	1회(1)	3.25	.87	8.051***	.000	1-2,4 3
	2 - 3회(2)	3.22	.69			
	4 - 5회(3)	3.93	.58			
	5회 이상(4)	3.28	.73			
	합계	3.52	.74			
일관성	1회(1)	3.33	.64	12.053***	.000	1-2,4 3
	2 - 3회(2)	3.08	.62			
	4 - 5회(3)	3.92	.63			
	5회 이상(4)	3.12	.72			
	합계	3.44	.75			
신뢰성	1회(1)	2.97	.93	9.293***	.000	1-2,4 3
	2 - 3회(2)	3.04	.78			
	4 - 5회(3)	3.85	.64			
	5회 이상(4)	3.12	.74			
	합계	3.37	.82			

4. 포지션에 따른 심판유형별 심판판정 인식 차이

포지션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포지션에 따른 공정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5.168, 유의확률이 .366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지션에 따른 신속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0.770, 유의확률이 .514 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지션에 따른 일관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3.519, 유의확률이 .018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지션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1.363, 유의확률이 .259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10>에서 Tukey HSD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일관성의 경우 Right와 Center가 차이가 나타났다.

< 표 - 10 > 포지션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포지션	M	SD	F	p	Post-hoc
공정성	Left	3.18	.66	1.069	.366	
	Right	3.31	.57			
	Center	3.50	.71			
	Setter	3.34	.89			
	합계	3.32	.69			
신속성	Left	3.53	.72	.770	.514	
	Right	3.37	.79			
	Center	3.68	.58			
	Setter	3.46	.98			
	합계	3.51	.74			
일관성	Left(1)	3.42	.73	3.519*	.018	
	Right(2)	3.12	.75			1-2,4
	Center(3)	3.77	.67			
	Setter(4)	3.50	.76			1-3,4
	합계	3.44	.75			
신뢰성	Left	3.53	.74	1.363	.259	
	Right	3.27	.75			
	Center	3.45	.88			
	Setter	3.05	.98			
	합계	3.37	.82			

5. 입상 실적에 따른 심판유형별 심판판정 인식 차이

입상 실적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1>와 같다. 입상 실적에 따른 공정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202, 유의확률이 .895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 실적에 따른 신속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249, 유의확률이 .862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 실적에 따른 일관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985, 유의확률이 .403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 실적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1.081, 유의확률이 .361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11 > 입상 실적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성적	M	SD	F	p
공정성	우승	3.20	.95	.202	.895
	준우승	3.37	.60		
	4강진출	3.36	.68		
	예선탈락	3.29	.69		
	합계	3.32	.68		
신속성	우승	3.64	1.00	.249	.862
	준우승	3.49	.69		
	4강진출	3.57	.66		
	예선탈락	3.45	.80		
	합계	3.51	.74		
일관성	우승	3.42	.76	.985	.403
	준우승	3.56	.67		
	4강진출	3.52	.73		
	예선탈락	3.26	.83		
	합계	3.44	.75		
신뢰성	우승	3.43	1.18	1.081	.361
	준우승	3.55	.60		
	4강진출	3.38	.78		
	예선탈락	3.18	.87		
	합계	3.37	.82		

6. 팀 내 역할도에 따른 심판유형별 심판판정 인식 차이

팀 내 역할도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팀 내 역할도에 따른 공정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620, 유의확률이 .540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내 역할도에 따른 신속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3.645, 유의확률이 .030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내 역할도에 따른 일관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1.432, 유의확률이 .244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내 역할도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F값이 .832, 유의확률이 .438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12> Tukey HSD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교체 멤버와 비주전이 차이가 나타났다.

< 표 - 12 > 팀 내 역할도에 따른 평균, 편차 및 분산분석

	팀 내 역할도	M	SD	F	p	Post-hoc
공정성	주전	3.33	.73	.620	.540	
	비 주전	3.53	.43			
	교체 멤버	3.22	.60			
	합계	3.32	.69			
신속성	주전(1)	3.56	.78	3.645*	.030	1-2 1-3
	비 주전(2)	3.97	.60			
	교체 멤버(3)	3.22	.57			
	합계	3.52	.74			
일관성	주전	3.49	.79	1.432	.244	
	비 주전	3.63	.58			
	교체 멤버	3.22	.66			
	합계	3.44	.75			
신뢰성	주전	3.36	.90	.832	.438	
	비 주전	3.72	.59			
	교체 멤버	3.29	.60			
	합계	3.37	.82			

B.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1.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과 경기력(경기운영, 경기 영향력)간의 상관관계

배구 경기 심판 판정인식요인이(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 선수들의 경기운영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이용 하였다. 아래 <표-13>에 따르면 신속성과 공정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627,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일관성과 공정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765,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일관성과 신속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579,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신뢰성과 공정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702,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신뢰성과 신속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724,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신뢰성과 일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673,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신뢰성과 신속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724,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신뢰성과 일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673,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경기운영과 공정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735,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경기운영과 신속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690,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경기운영과 일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709,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경기운영과 신뢰성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729,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경기력과 공정성, 경기력과 신속성, 경기력과 일관성, 경기력과 경기운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지만, 경기력과 신뢰성은 피어슨 상관계수가 0.20, 유의확률이 .046으로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표 - 13> 심판 판정 인식 요인이 경기력간의 상관관계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	경기운영	경기영향력
공정성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신속성	Pearson 상관계수	.627(***)	1				
	유의확률	.000					
일관성	Pearson 상관계수	.765(***)	.597(***)	1			
	유의확률	.000	.000				
신뢰성	Pearson 상관계수	.702(***)	.724(***)	.673(***)	1		
	유의확률	.000	.000	.000			
경기운영	Pearson 상관계수	.735(***)	.690(***)	.709(***)	.729(***)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경기 영향력	Pearson 상관계수	.145	.096	.120	.200(*)	.031	1
	유의확률	.149	.343	.233	.046	.756	

2.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이 경기운영에 미치는 영향

배구 경기 심판 판정인식요인이(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 선수들의 경기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는 <표-14>와 같다.

배구 선수들의 경기운영에 대한 영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결정계수 R^2 값은 .674로 모형이 약 67%정도의 설명력을 갖으며, 회귀분석 결과 F 통계량 값은 49.021,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모형이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과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을 독립변인으로 할 때 추정된 모형의 계수는 각각 0.321, 0.252, 0.233, 0.239이며, t 통계량 값이 공정성은 2.654, 신속성은 2.572, 일관성은 2.212, 신뢰성은 2.408으로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모든 요인이 경기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 14 > 심판 판정 인식 요인이 경기운영에 미치는 영향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59	.266		-1.350	.180
공정성	.321	.121	.266	2.654**	.009
신속성	.252	.098	.226	2.572*	.012
일관성	.233	.106	.212	2.212*	.029
신뢰성	.239	.099	.236	2.408*	.018
R^2=.674 F=49.021**					

3.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이 경기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

배구 경기 심판 판정인식요인이(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 선수들의 경기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는 <표-15>와 같다. 배구 선수들의 경기 영향력에 대한 영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결정계수 R^2 값은 .214로 모형이 약 21%정도의 설명력을 갖으며, 회귀분석 결과 F 통계량 값은 1.145, 유의확률 값이 .340으로 모형이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요인이 경기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 15 > 심판 판정 인식 요인이 경기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88	.399		7.748***	.000
공정성	.058	.182	.055	.319	.750
신속성	-.106	.147	-.109	-.723	.471
일관성	-.032	.158	-.033	-.202	.840
신뢰성	.233	.149	.263	1.567	.120
R^2=.214 F=1.145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배구 경기가 보다 가치 있고 교육적인 스포츠의 장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선수들의 실천적 자아를 완성시키고 심판 판정에 대한 불신을 제거 하여 바람직한 심판의 모습을 설정하고 심판의 자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심판 판정 시 경기력과의 관계를 남자 중학교 배구 선수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A.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차이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소속 지역에 따라서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진성(2005)의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판정의 인식에 따른 심리상태 및 경기 영향도 분석”에서는 배경 변인 중 소속과 운동경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순남(2006)의 “유도 심판에 대한 선수와 심판원의 인식도 차이 분석”에서는 배경 변인 중 대회 입상 선수일수록 심판판정에 불공정하다고 인식 하였다. 여기서 입상 선수에 따라 심판판정에 인식도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선행 연구 중 김진영(2007)의 “축구심판에 대한 중 · 고등학교 여자 축구선수들의 인식도 조사연구”에서는 경력에 따라 심판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배경 변인 중 경력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 지역과 대회 참가 빈도에 따라 심판 판정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심판판정의 인식 요인인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 모든 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지역에서 4개요인 모두 강원권과 충청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판의 판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파 판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대회 참가 빈도에 따라 심판 판정의 인식도 4개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4-5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회 이상이 공정성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회와 2-3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회 참가 빈도가 높을수록 심판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다른 연구 중에서는 김경호(2006)의 “배구선수의 심리적 지각 수준에 따른 경기력 변화”에서도 경력에 따라 심판 인식에 차이가 있고, 경력이 낮은 선수일수록 심판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순남(2006)의 “유도 심판에 대한 선수와 심판원의 인식도 차이 분석”에서는 경력이 높은 선수일수록 심판판정에 불공정하다고 인식 하였다. 같은 경력에 따른 심판 인식차이지만 하나는 경력이 낮은 선수, 하나는 경력이 높은 선수에 따라 불신감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운동 종목의 특성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에 따라 심판 판정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판판정의 인식 요인인 공정성, 일관성,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년-4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5년도 비슷한 수치로 높게 나타났다. 1년, 1-2년은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에 높을수록 심판 판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박대성(2007)의 “경기태권도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선수들의 심리상태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소속과 운동경력, 대회 참여횟수에 따라 심판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다고 한 연구는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김기선(2002)의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에서도 선수들의 대회 참여 횟수에 따라 심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구 경기 시 포지션에 따라서 심판 판정에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데, 심판판정의 인식 요인인 일관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Center와 Setter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Right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Center와 Setter는 배구 경기 중 네트에서 가장 많이 근접해있고, 블로킹이나 볼 접촉 참여 횟수가 높기 때문에 심판 판정이 동일한 선수 행동이나 항의로부터 심판 판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Right같은 경우는 중학교 배구 경기에서 오픈 공격 참여 횟수가 낮음으로 인하여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팀내 역할도에 따라서 심판 판정에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데, 심판판정의 인식 요인인 신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주전은 코트 밖 경기를 관찰함에 있어서 인이나 아웃에 신속함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사료 된다. 교체 멤버의 경우 경기장 안에서의 역할도가 낮기 때문에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B.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내에 발표된 운동경기의 심판판정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 한백인(2002)의 "태권도 경기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심판판정의 잘못된 영향으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41%의 선수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고 또한, 전국 규모 시합에서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으로 패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63%가 패한 경우가 있다고 대답 하였다. 이는 심판의 판정이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김홍대(1974)는 "심판의 태다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경쟁을 통한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심판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정확한 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선수에게 영향을 받기 보다는 선수가 심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심판의 판정이 선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진성(2005)의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 상태 및 경기 영향도 분석"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이 경기 운영 및 결과에 대한 긴장,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에게 긴장,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상태 변화를 주어 경기력을 저하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선(2002)의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에서 선수들은 심판의 판정에 의하여 경기의 승패가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고, 박대성(2007)의 "경기태권도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선수들의 심리상태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판 판정이 경기운영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수의 관점으로 볼 때 심판의 판정은 경기의 승 · 패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 중 정민규(2004)의 “심판의 경기운영 및 판정에 대한 국내 농구 선수들의 의식조사”는 선수들은 심판판정에 따라 경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기력을 발휘 하는데도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 경기의 승패 및 팀 순위에도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논란이 각 경기장에서 현재에도 끈임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판 판정에 대한 불신이나 낮은 신뢰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말순(1999)의 “배구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 조사”와 김기선(2002)의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에 대한 인지도 조사 연구"에서 심판의 판정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응답이 70.3%를 차지해 심판의 판정에 의해 경기 결과나 승 · 패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배구 경기에서는 심판 판정 시비가 항상 대두 대는 가운데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7~2008 V리그에서는 판정 시비가 벌어진 두 삼성화재에게 득점 이 인정되면서 손쉽게 승부가 갈랐다(국민일보, 2008)는 기사가 날 정도로 판정으로 인하여 경기 승 · 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배구 경기에서 심판판정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어느 경기를 막론하고 심판으로서 제 역할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배구 경기에서 심판판정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심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판판정의 인식 요인인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이 상관관계분석에서 경기 운영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성의 경우는 특정한 팀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거나 혹은 유리한 판정을 하거나 애매한 경우 심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하여 판정을 할 때 경기운영에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속성의 경우 득점이나 반칙 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 경기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관성의 경우 선수 행동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선수 및 지도자가 항의를 할 때 일관되지 않은 경우 영향을 미치며, 신뢰성의 경우는 심판의 소신이나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배구 경기 심판 판정인식요인이(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 배구

선수들의 경기 영향력에 대한 영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모든 요인이 경기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기운영과 경기 영향력을 하나의 경기력으로 판단하였을 때, 아직 심판 판정이 경기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선수들에게 다양한 훈련으로 배구 선수들에게 심리적, 경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여 경기력을 높이고, 심판들은 선수나 팀 간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을 높여 배구 경기에 질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배구 경기에서 심판판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2008년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대한배구협회에 등록된 선수 중 5개 지역의 17개 팀 총200명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석, 사후검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배구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판 판정의 하위요인(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이다.

1) 소속 지역에 따른 심판판정의 인식은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수 경력에 따른 심판판정의 인식은 공정성, 일관성, 신뢰성에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회 참가 빈도에 따른 심판판정의 인식은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포지션에 따른 심판판정의 인식은 일관성에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입상 실적에 따른 심판판정의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팀내 역할도에 따른 심판판정의 인식은 신속성에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구 경기 심판 판정인식요인이(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 선수들의 경기운영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한 결과 일관성과 공정성, 일관성과 신속성, 신뢰성과 공정성, 신뢰성과 신속성, 신뢰성과 일관성, 신뢰성과 공정성, 신뢰성과 일관성, 경기운영과 공정성, 경기운영과 신속성, 경기운영과 일관성, 경기운영과 신뢰성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 경기 운영에는 모든 요인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영향력에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나지 않았다.

B. 제언

본 연구는 배구 선수들이 시합 중 경험하는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배구 종목에서의 선수들이 경험하는 심판판정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배구 선수들이 경험하는 불공정한 심판판정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남자 중학교 배구 선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을 확대하여 중 · 고 · 프로배구팀 등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남자 중학교 배구 선수들이 심판 판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선수들의 관점에서만 분석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심판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배구 심판의 문제점들에 대한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심판의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동구(2004).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고교유도선수의 의식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 스포츠 리서치, 15(5), 779-785.

김경호(2006). 배구선수의 심리적 지각수준에 따른 경기력 변화.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교준(1990). 태권도 경기의 심판 판정에 대한 조사연구. 龍仁大學校 論文集, 5, 37-48.

김교준(1994). 排球의 理解. 서울: 경운출판사.

김기선(2002).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동규(1983). 심판의 자질과 심판 풍토에 관한 조사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동규(1989). 鬪爭 스포츠 審判의 資質 및 審判風土에 關한 調査硏究. 人文硏究, 10(2), 281-321.

김영학(1982). 검도심판 결과에 따른 선수들의 심리적 고찰. 대한체육과학대학교 무도연구소, 4(1), 133-141.

김영학, 신승호(1999). 검도 심판들의 판정의식 및 성향 분석.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10(1),

김종철(1996). 운동경기 심판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김진영(2007). 축구심판에 대한 중·고등학교 여자축구 선수들의 인식도 조사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학렬(1994). 레슬링 경기의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조사. 1급 경기지도자 연구논문집.

김홍대(1974). 심판의 태도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희중, 김사엽(2000). 하키 심판판정이 중 · 고등학교 선수들의 의식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3), 110-118.

민웅기(1984). 심판에 대한 각 운동선수별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대성(2007). 경기태권도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선수들의 심리상태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박상록(1996). 심판의 판정에 대한 구기 운동선수들의 의식에 관한 조사 분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찬희(1991). 스포츠 도덕성 회복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천조, 이후봉, 백상서, 김경진, 안길영(2004). 심판판정이 핸드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 스포츠 리서치, 15(5), 787-797.

윤동식(1998). 유도선수들의 심판판정 결과에 따른 심리적 고찰.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긍세(1987). 스포츠 씨리즈 . 5 , 배구. 서울: 동양문화사.

이병호(1989). 스포츠를 대하는 승리 지향적 태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종목(1991) 태권도경기에 있어서 심판의 태도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이종희(1989) 농구 경기 내용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8(1), 1231-1244.

이진성(2005).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판정의 인식에 따른 심리상태 및 경기 영향도 분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찬희(1991) 스포츠 도덕성 회복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국현(2003). 농구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이 선수만족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말순(2000)배구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 조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민규(2004). 심판의 경기운영 및 판정에 대한 국내 농구 선수들의 의식조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재준(1991). 한국 배구선수의 성격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청희, 홍길동(2002). 하키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 상태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체육학회지, 23(1), 11-21.

최기정(1991). 排球競技의 得失에 關한 內容分析 : 第七回 大統領盃 排球大會를 中心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선길(1995). 스포츠의 윤리적 행위준칙으로서 스포츠맨십이 갖는 의미.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재만(1982). 축구심판판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최희남(1987). 세계 남자 배구 상위 팀과 한국 국가대표 팀의 공격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6(1), 1047-1060.

한백인(2002). 태권도 경기의 심판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조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교육 대학원.

한순남(2006). 유도 심판에 대한 선수와 심판원의 인식도 차이 분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한배구협회(2007). 배구경기규칙서.

Linacre, J. M.(2002) FACETS : Computer program for many-faceted Rasch measurement. Chicago: MESA Press.

Lunz, M. E., Wright, B. D., & Linacre, J. M.(1990) Measuring the impact of judge sevenity or examination scores.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Willi R. Smith(1999). A little bit at a time. REFEREE.

FIVB(2007). FIVB official Volleyball rules. Federation International de Volleyball.

FIVB(2007). Refereeing instructions. Federation International de Volleyball.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본 연구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순수하게 배구 발전을 목적으로 “배구 심판 판정에 따른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잠시만 내어 주시어 성심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최희광

Ⅰ. 개인적 특성 관련 사항 -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가 소속한 지역은?

① 수도권 ② 충청권 ③ 전라권

④ 강원권 ⑤ 영남권

2. 귀하의 운동 경력은?

① 1년 이상 ~ 2년 미만 ② 2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4년 미만 ④ 4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3. 올해 참가한 대회의 수는?

① 1회 ② 2회 ~ 3회

③ 34회 ~ 5회 ④ 5회 이상

4. 귀하의 포지션은?

① Left ② Right

③ Center ④ Setter

5. 귀하가 소속된 팀의 최근 대회 성적은?

① 우승 ② 준우승

③ 4강 진출 ④ 예선탈락

6. 귀하의 팀에서의 역할도는?

① 주전 (최근 10경기 중 5경기 이상 선발출전)

② 교체멤버 (최근 10경기 중 5경기 이상 교체출전)

③ 비 주전 (최근 10경기 중 5경기 이상 미 출전)

Ⅱ. 다음 질문은 심판(국내)에 관한 인식도입니다.

구분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공정성	참가한 경기마다 국내 심판들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정을 한다.					
	최근 참가한 경기에서 심판의 불리한 판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참가한 경기에서 심판의 유리한 판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심판 판정이 애매한 경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판정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판정시비가 있더라도 심판은 공정하게 판정을 내린다.					
신속성	참가한 경기에서 심판판정이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득점 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					
	반칙 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					
	애매한 판정이 나올 경우 신속하게 다른 심판들과 합의판정 한다.					
일관성	주심은 동일한 선수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는 판정을 한다.					
	부심은 동일한 선수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는 판정을 한다.					
	판정에 선수 및 지도자가 항의를 하더라도 일관되게 심판을 본다.					
신뢰성	경기 시 국내심판의 심판 판정은 선수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경기 시 심판은 소신 있는 태도로 심판을 본다.					
	경기 시 심판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심판을 본다.					
	경기 시 심판의 품의 있는 행동들이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Ⅲ. 다음 질문은 경기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분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기운영	심판이 판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이 경기에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이 선수 또는 감독의 요구에 따라 판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이 팀에 대한 선입견(연고지, 학연, 홈/원정 등) 없이 동등하게 판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이 터치아웃 상황에서 올바른 판정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의 판정이 원활한 경기흐름을 위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의 판정이 앞선 판정에 대한 보상판정이 아닌 공정한 판정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의 판정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까?					
경기 영향력	심판의 판정이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의 판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의 매끄럽지 못한 경기 운영으로 인해 선수들의 기량이 저하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경기에 임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 위축된 플레이를 펼치게 된 경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